

## EBS 지문과 연계된 2011학년도 수능 문제의 성격

### 1. <도입>

1) 작년도(2011학년도) 수능 문제를 EBS와 연계한다고 평가원이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체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난의 여론도 거셌고, 마치 EBS 지문과 연계되지 않은 것처럼 혼동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EBS 지문이나 문제를 어떻게 수능에 출제할 것인가라는 어떤 원칙이나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예년과 달리 언어 문제가 오히려 어려워져서 입시 전문가들이 별다른 주목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신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EBS 인터넷 수능 (2010)』과 『EBS 수능 특강 파이널 실전모의고사』를 살펴보고, 거기서 3개의 지문이 작년 수능에 연계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3지문만으로도 출제원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에 평가원이 수능을 EBS 교재와 연계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출제자 내부에 EBS 교재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어떤 원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원칙이나 원리가 있었지만 실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여 큰 비난을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는 출제원칙 중 어떤 부분만 집중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 3가지 문제 유형을 편의상 ①형, ②형, ③형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먼저 살펴보면 **①형은 ‘거지만’ 똑같이 내는 문제 유형**으로 보입니다. ‘그레고리력’ 지문이 EBS 교재에서 출제되었다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도 거의 그대로 지문과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5개 지문은 모두 이러한 유형으로 출제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출제해보고, 수험생들의 수준을 가늠하면서 난이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난이도를 높여 나갈 때, 주로 ②형의 문제가 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②형의 경우는, EBS 교재에 나오는 내용 중 글의 화제어나 이와 관련된 개념을 수능지문에서 그대로 사용하지만 **구체적 사례는 다른 것으로 제시하는 유형**입니다. ‘두더지’ 지문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례가 너무 어려워서 10명 중 7~8명이 틀리는 최고의 난이도를 가진 문제로 바뀌어 비난을 자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③형의 경우는 EBS 교재와 연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출제하는 유형입니다. ‘채권’ 지문이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널』 교재에 보면 ‘유가증권’의 지문이 나옵니다. 글의 화제어를 ‘채권’으로 바꾸어 버림으로써 전혀 다른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을 설명하는 개념 중에 ‘채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념들도 있어 EBS와 연계를 주장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 3가지 유형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고, 공부의 방향이나 금년도 수능문제 출제를 가늠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2. <분석>

2011 수능문제 유형	EBS 지문이 수능에서 수정된 방향	EBS문제와 수능문제와 관련성	6월 모의고사와 비교하기
①형 (그레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BS에서는 글의 화제어가 ‘양력의 역사적 변화’ 정도였다. 그런데 수능에서는 ‘그레고리력’이 화제어가 됨으로써 글 내용의 집중도가 EBS보다 훨씬 두드러지게 되었다.</li> <li>● ‘처음-중간-끝’이라는 글의 완결성이 높아졌다. 수능 지문의 구성 원리를 지키고 있다.</li> <li>● 화제어에 대한 세부정보는 그레고리력이 만들어진 원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EBS 지문에 나온 내용 이외에 이러한 원리와 관련된 정보가 추가되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BS 교재에 나온 &lt;보기&gt; 문제가 수능에서도 그대로 나왔다. 약간의 표현 변화는 있지만 &lt;보기&gt;의 상황이 EBS 교재나 수능에서 똑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li> <li>● EBS 교재에 나오는 일치-불일치 문제나 윤년을 계산하는 문제는 실제 수능 문제에서는 선택지 문항에 포함되었다.</li> <li>● EBS 지문을 읽고 내용을 알고 있으면 수능에서 확실히 도움이 되는 문제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중간-끝의 원리를 구성한 것은 ‘일치법’ 지문과 유사하다.</li> <li>● 화제어와 관련된 세부정보가 ‘그레고리력’의 원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 지문도 반도체의 원리인 ‘정류기능’을 추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li> <li>● 6월 모의고사 문제가 EBS 문제와 비슷하기 보다는 ‘그냥’ 쉽게 출제된 것 같다.</li> </ul>
②형 (두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BS 교재에서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그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수능에서는 ‘두더지’의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개념을 나중에 설명하고 있다.</li> <li>● EBS 교재에 나온 사례보다 수능에 나온 사례가 복잡하다. 단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보기&gt; 문제는 역사적으로 단어가 변한 사례를 주고 있어서 EBS 교재와 관련이 없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두더지 지문과 관련된 2개 문제가 작년 수능 오답률 1위, 2위를 차지하였다.</li> <li>● EBS 교재와 연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지문과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면, 실제 수능에서 어려운 선택지 문항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li> <li>● 개념어가 글 전체의 화제어로 나올 경우 그것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문제 유형이 출제되지 않았다.</li> <li>● 9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 유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즉, 지문의 개념에 대해 구체 사례를 주고 의미를 확인하는 고난도 추론문제의 출제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출제 방식과 해결원리를 알아두어야겠다.</li> </ul>
③형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BS 교재에서는 ‘유가증권’의 지문이 나왔고, 수능에서는 ‘채권’의 지문이 출제되었다.</li> <li>● EBS 교재에 나온 수익률, 지급불능위험, 만기상환, 이자율의 개념들이 수능 지문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지문 읽기와 문제 풀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현재가치’ 나 ‘액면 이자율’ 개념 등이 새로 첨가되어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벽이 되었기 때문이다.</li> </ul>	<p>관련성 없음</p>	<p>이런 문제 유형이 출제되지 않음</p>

### 3. <결론>

#### 1) 출제 예상

금년 수능에서는 작년의 경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EBS와 연계를 확실히 할 것입니다. 일단 금년 6월 모의고사에서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쉽게 내겠다는 교육정책에 의해 수능 역사상 가장 쉬운 문제로 선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9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조정될 것입니다. 1% 를 뛰어 넘는 만점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난이도를 조정한다고 한다면 수험생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 유형이 바로 ②형입니다. EBS 지문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고 개념어도 그대로 사용하겠지만, <보기> 상황이나 선택지 상황은 조금 어렵게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추론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중에서 추론 문제를 훈련하여 해결 원리를 습득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70% 연계율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30%는 EBS 교재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비문학 2개 정도의 지문입니다. 비문학 2개 지문이 어느 수준으로 나올지 가늠해보자면, 적어도 1개 지문은 꽤 높은 수준으로 제시될 것이고 문제도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위권 수험생들을 가리기 위한 문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지문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면 1등급이나 언어만점 확보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수능 기출문제에서 고난도 문제를 보면, **2010학년도와 2011학년도에서는 일치-불일치 문제**였고, 과학이나 기술 지문 등 사물 대상을 설명하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초반과 중반에는 <보기> 문제나 적용의 문제 등 추론적 문제**였습니다. 예술이나 사회, 인문 지문 등 관념 대상을 설명하는 지문이었습니다.

#### 2) 대응방안

현재 수능 등급이 2~3등급에 있는 수험생은 EBS 교재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문의 내용을 알고 푸는 것과 처음 읽은 상태에서 푸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출제되는 것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EBS 교재를 공부하든 기출문제를 공부하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비문학은 집중력 있게 매일** 놓치지 말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BS 교재도 풀어보아야 하고, 기출문제도 훈련해 보아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진작 해놓을 걸”, 후회가 들 수 있습니다. 읽기 능력이 좋은 수험생은 기출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이고, 스스로 읽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은 EBS 교재를 보면서도 기출문제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든 수험생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열공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 3) 9월 모의고사와 수능

9월 모의고사에서 올 수능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9월 모의고사를 다시 분석하여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처럼 정답이 나오는 언어신기’ 저자 유재완 올림